

德壽宮 美術館의 危機

金 廷 鶴

傳聞한 바에 依하면 文教部는 德壽宮美術館을 國立博物館에 統合하려는 案을 세우고, 그 具體的 實施 計劃까지 協議하고 있다고 한다. 이 消息은 이 方面에 關心을 가진 學界와 文化界에 큰 衝激을 주어서 文化財 委員會와 韓國大學博物館協會가 이에 反對하는 建議文을 文教部에 提出하였고, 또 韓國美術家協會에서는 같은 뜻의 建議書를 提出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案의 發意者가 누구이고, 推進者가 누구라는 등 여러가지 風說이 돌고 있으나, 그것은 하여튼 적어도 一國의 唯一한 美術館, 더우기 由緒 깊은 世界的으로 알려진 美術館을 한 두 사람의 意見에 依하여 간단한 行政的 措施로 廢止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 보다 더 重要한 일도 어떤 한 사람의 權力者에 依하여 하루 아침에 決定되는 일이 있으니, 美術館 하나쯤 廢止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한 사람들에겐 우리의 말이 쏘려 通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누구는 영국이 印度는 잃을지언정 靑島는 잃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또 우리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들의 文化를 얼마나 존중한다는 말도 듣고 있다. 우리가 어찌 우리 민족을 그들에게 비길 수 있으리오만, 아니 우리는 過去에 오히려 우리 文化를 賤視해 온 민족이기는 하지만, 今後도 그러한 過誤를 되풀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德壽宮美術館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舊韓末에 發足되었고, 그 뒤도 순전히 舊皇室의 財產에 依하여 美術品이 蒐集되었다. 舊王朝은 무너졌고, 또 그것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舊王朝의 文化的 遺産은 尊重하여야 될 것이다. 日帝時代에도 李王家美術館으로서 그 機能을 發揮하였고, 그 收藏된 文化財의 價値가 높이 評價되었는데, 獨立된 오늘날에 우리의 손으로 그 美術館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가 어떻게 文化民族이라고 자랑 할 수 있고, 우리의 文化를 존중한다고 할 수 있을까?

德壽宮美術館의 收藏品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書畫·陶磁器·佛像等 우리 文化의 精粹를 모은 것이어서, 그 價値에 있어서 世界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그 數量에 있어서도 놀랄만한 것이 있다. 이것을 만약 外國과 같은 時勢로 값을 친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을만한 天文學的 數字가 될 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運命을 걸고라도 이 美術館을 守護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石造殿까지도 回收하여 우리 古文化의 殿堂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博物館 發達史에 있어서 初期에는 綜合的인 博物館이 많았다. 그러나, 학문의 발달에 依한 分科에 따라 博物館도 專門的인 박물관으로 分化하여 가고 있다. 例컨대 美術館, 科學博物館, 民俗博物館, 歷史博物館, 人類學·考古學博物館 등이 있다. 물론 各國의 特殊 事情에 따라 分化의 基準과 名稱이 다르다. 例컨대 어떤 나라에서는 考古學博物館이 歷史博物館에 包含되기도 하고, 또는 人類學博物館이 「내추럴·히스토리」 박물관에 包含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여튼 博物館이 이와 같은 專門的 分化의 過程을 밟고 있는 것이 世界의 趨勢이다.

우리 나라에는 다 아는 바와 같이 德壽宮美術館, 國立博物館 外에 科學博物館, 民俗博物館이 있었다. 그런데 科學博物館은 6·25 動亂 때에 戰禍로 因하여 불타버렸다가, 最近에 復活되었고, 民俗博物館은 解放前에는 施政紀念館으로 많은 民俗品이 蒐集되었던 것인데, 解放後 民俗學者 故 宋 錫夏氏의 努力에 依하여 國立民族博物館으로 發足하였다가 還都後 國立博物館에 合치므로써 그 뒤 永永 廢止되고 말았다.

民俗博物館이 廢止하게 된 經緯에 對하여는 그것이 廢止되기 前까지 그 館長으로 있었던 筆者는 할말

이 많이 있고, 세상을 놀라게 할만한 事實이 많이 있으나, 여기는 그 자리가 아니므로 다른 機會에 미루고, 여기서는 더 말하지 않는다.

人類學 또는 民俗學(우리 나라에서 通用되는 Ethnology 의 뜻으로 쓴다)이란 學問이 우리 나라에는 늦게 紹介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生活·信仰·娛樂 등에 對한 研究가 重要視되어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資料가 그 民族에 對한 根本的 研究가 된다는 認識이 오늘날 점점 널리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은 特殊한 歷史를 밟아 온 民族에 있어서 모처럼 있었던 民俗博物館마저 없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慨嘆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돌보지 않는 우리의 民俗品들이 오히려 日本에 건너가서 東京의 民藝館이나 奈良의 天理大學 博物館에 收藏되어 높이 評價되고 있는 事實을 볼때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이 있다.

德壽宮美術館을 國立博物館에 統合하려는 理由가 傳聞한 바에 依하면 다음의 두가지인 듯 하다.

첫째는 德壽宮美術館이나 國立博物館이 內容이 같은데, 두 博物館을 둘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하기는 前부터 外國人들이나 우리나라 知識人들 중에도 德壽宮美術館과 國立博物館이 陳列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兩者의 區別을 알 수 없는데, 두 博物館이 한 宮안에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 왔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보기에 무理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博物館의 最近까지의 陳列을 보면 대개 陶磁器·書畫·佛像 등이 重點이 되어 있는 듯 하여, 누가 보아도 두 박물관의 性格上 差異를 알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德壽宮美術館은 처음부터 美術館으로 發足하였고, 그 뒤도 뚜렷이 美術館으로 運營되어 왔다. 이에 反하여 國立博物館은 처음부터 考古學的 資料蒐集이 主가 되었고, 그 밖에 歷史·美術등의 資料도 아울러 蒐集되었다. 그러므로 國立博物館은 專門的 美術博物館으로서의 德壽宮美術館과는 뚜렷이 性格上 差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德壽宮의 한 古宮안에 자리잡고 있는바에야 國立博物館의 陳列은 德壽宮美術館과는 다른 特色을 나타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理由로는 德壽宮美術館이 現在 그 機能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것은 事實이다. 그 原因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德壽宮美術館은 舊皇室 財産을 管理하는 行政官이 責任者로 任命되고, 그 職員에도 美術에 關한 專門 知識이 있는 사람이 採用되지 못하였다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現在의 制度上의 缺陷과, 美術館의 重要性에 對한 認識이 缺如된데서 온 것이다. 만약 美術館의 重要性에 對한 認識이 是正된다면 이 문제는 쉽게 解決될 수 있을 것이고, 德壽宮全體가 美術館을 中心하여 運營되어서 美術館으로서의 機能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德壽宮美術館을 國立博物館에 統合하려는 理由가 다 成立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機會에 德壽宮美術館이 제자리를 도루 갖아서 一國의 唯一한 美術館으로서 遜色이 없는 面目을 갖추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 國立博物館이 德壽宮美術館의 領域을 빼앗고 들어온 것이 처음부터 不合理한 일이며, 마땅히 本來의 景福宮 제자리에 도라가서 國立博物館 本然의 特色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위에서 거듭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唯一한 由緒 깊은 美術館이 輕率한 理由로 없어지게 된다면 그 罪過는 우리 歷史에 길이 記錄되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이러한 중대한 일이 어느 한 두 사람의 意思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것은 民主主義社會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尙書 文化財委員會에도 事前에 諮問이 있어야 되었을 것이다. 아모썬 關係者들은 이 方面에 關心을 가진 學界·文化界의 輿論을 參酌하여 民俗博物館이 廢止된 것과 같은 前轍을 다시 밟지 않기를 念願하는 바이다.

追記. 위의 글을 쓴 뒤에 最近 들리는 말에 依하면 德壽宮美術館을 名實 함께 國立博物館에 統合하려는 計劃은 中止하고, 이름은 美術館으로 그대로 두고, 運營上 統合만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過去의 民俗博物館이 廢止하게 된 經過를 그대로 밟는 것이라 보겠는데, 民俗博物館도 처음부터 廢止된 것이 아니고, 國立博物館의 分館으로 하였다가, 永永 國立博物館에 吸收되어 버렸던 것이다. 美術館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運營上만 統合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式으로서 不遠間 德壽宮美術館의 完全 廢止에 까지 이를 것은 明若觀火의 일이라 하겠다.